



봉우 컬럼

영적 눈을 떠라

육의 눈을 뜨면 저 사람이 예쁘다 못 생겼다, 풍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인다. 그러나 혼의 눈을 뜨면 저 사람이 지식이 있다 없다, 교양이 있다 없다 등 내적 가치를 보게 된다. 여기까지가 세상 사람의 눈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소경'이라 한다(눅 6:39). 왜 그러셨을까? 영적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긴 예수를 믿는 자라고 영적 눈을 뜬 것은 아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도 소경이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나 영물인 귀신은 예수를 알아봤다(막1:23-24).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소경이었다.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별거벗었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한 줄 알고 있었다(계3:17).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계3:18). 영적 눈을 떠라는 것이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영적 눈을 뜨면 엄청난 세상이 보인다. 육의 눈이나 혼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상이 전개된다. 예수님을 보고, 천사를 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귀신들을 보게 된다. 또한 육적인 눈으로나 혼적인 눈으로 볼 때와는 확연히 다른 가치와 사고를 갖게 된다. 사도 바울이 문화적인 배경과 학문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이 때문이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매오는 눈 뜨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고 학수고대하다가 고침을 받아 눈을 뜬다. 육적인 소경은 자신이 소경인 줄 알기에 눈 뜨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영적 소경은 자신이 소경인 줄을 모른다. 정상인 줄 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뜬 자를 잘못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문제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 내라"(사43:8). 주의 종은 자기에 맡겨진 양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올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는 자다. 그래서 더욱 영의 눈을 떠야 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적 눈을 떠라.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다.

기도는 응답 받고 하는 것이다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고 기도는 응답 받고 하는 것이다!"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이 말씀에는 신앙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깔려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말이다.

또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믿음이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들처럼 메아리 없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기초일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를 잊어버리고는 당장 아무런 가시적인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원망한다.

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어디까지 하나님께 다가 가야 하는지 말씀한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는 사무친 원한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오직 그 고을의 재판관이였다. 과부는 죽기 살기로 그 재판관을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한다. 재판관이 보아하니 이 과부가 무시하고 거절한다고 포기할 기세가 절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가는 언제까지나 자기를 귀찮고

어난 그리스 여인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귀부인인 셈이다. 그렇게 찾아온 여인이게 예수님은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고 버리신다.

"먼저 내 자식부터 배불리 먹여야해. 너희 개들한테 줄 건 없다."

'아무리 그래도 나를 개 취급하다니!' 하고 욕하고 돌아서면 종치는 거다. 그러나 '내 병든 딸을 고칠 수 있는 분, 마지막 희망을 갖고 찾아왔는데 무슨 소리를 들던 내 딸만 고치면 된다. 할 말은 그 다음에 하자.'하는 정신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목적을 이루었다. 기도는 이런 불퇴전의 자세로 시작하여야 한다. 그런 자에게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요, 그



평화통일이 될 때까지 기도성회를 계속한다는 선포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기반한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또한 기사와 표적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주실 분임을 믿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는 그 기도에 응답해주시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는 응답 받고 하는 것'이라 외치시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간절함의 상실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

과롭게 할 게 뻔하다. 결국 재판관은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였다. 그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어떤 공의나 대의에 떠밀린 게 아니라 오로지 징글징글한 과부를 피해보기 위함이었다. 사람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또한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 삶이 죽을 맛인데 백방으로 찾아다녀보았지만 허사였다. 그러다 마침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페니키아(시리아)에서 태

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면 이는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자를 누가 말리겠는가? 가히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란 이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뿐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조차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아닌가.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일3:1~12)



땀 흘려 얻은 빵과 돈보다 값진 것은 없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시련이나 역경이 오히려 약이 된다는 것이요, 어려움 속에서 일궈낸 성공이 더욱 값지다는 것이요, 대가를 치른 것만이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고난 없는 성공은 뿌리 없는 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비바람이 조금 거세도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불현듯 이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부자 아버지와 그의 하나 밖에 없는 아들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많은 아버지에게 늦게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 다. 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인지라 해달라는 대로 아까운 것 없이 다 해줬습니 다. 그러니 아들은 당연히 모든 것에 해플 수밖에요. 뒤늦게 아버지는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걱정하고, 하루는 아들을 불렀습니 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 네가 직접 돈을 벌어오너라.”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어진 적이 없는 아들은 아버지의 요구에 당황하며 방을 나오자 이 말을 엿들은 어머니가 “걱정마라. 엄마가 돈을 줄 테니 네가 벌어들인다고 하면 된다.”고 아들을 도왔습니 다.

이틀 후, 아들은 어머니가 준 돈을 들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돈을 벌어들인 습니다.” 하며 돈을 내밀었습니 다. 아버지는 돈을 받고 아들의 얼굴을 한 번 쳐다 보더니 활활 타고 있는 폐치카에 돈을 던져버렸습니 다. 그래도 아들은 텅텅히 이를 바라다볼 뿐이었습니 다. “이건 네가 번 돈이 아니야. 네가 직접 번 돈을 가지고 오라 하지 않았니?”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가 눈치 채셨을까?’ 하고는 방을 나왔습니 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희생 없는 승리도 없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아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것 역시 폐치카에 던져 버리고는 직접 돈을 벌어들이라고 호통을 쳤습니 다. 아들은 아버지가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하는 수 없이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 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께 갔습니 다. “아버지, 이 돈은 정말 제가 벌었습니다.” 하며 돈을 드리자 아버지는 이 돈도 폐치카에 던져 버리려고 했습니 다. 그러자 아들은 “내 돈! 안 돼요! 그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하며 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 다. 아버지는 그제야 “네가 번 돈이 맞구나. 돈을 벌어들인 돈의 가치를 알겠지?” 하며 아들을 힘껏 안았습니 다. “네, 아버지.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

니다. 이제부터는 아끼며 살겠습니다.” 오동나무도 세 번 가지치기를 해야 흔레움 가구의 재목이 되고, 보리도 밟아줘야 튼튼한 보리로 자라고, 거센 파도로 인해 유능한 해군이 되듯, 고난은 사람을 만듦고, 위인을 내는 훈련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인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일부러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날개를 펴터거리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어미 독수리는 재빨리 밑에서 받아 다 시 등

지 로 올 라 옵 니 다. 그리고 는 또 떨어뜨립 니 다.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합니다.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보면 생사가 오가는 것이기에 어미 독수리가 원망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이 과정 속에서 새끼 독수리는 자신도 모르게 날개에 힘이 생기고 결국 창공을 훨훨 나는 강한 독수리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회 32년 동안 저 역시 새끼 독수리처럼 수없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모함과 핍박은 물론이고, 팬팡에 헤딩하는 것 같은 수많은 과정을 겪었고, 교단에서 제명되고 해외에서 추방되는 과정도 겪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폭포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 날개에 힘이 있더라 란 말입니다. 제가 창공을 나는 강한 독수리가 되어 있더라 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더니 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졌으며, 더욱 영혼을 사랑하게 되

었더라 란 말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괴로운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히12:11~13).

그렇습니 다. 모세가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요셉에게 있어 이방의 노예 생활이 그를 재상에 올려놓았으며, 야곱의 20년간의 도망자 생활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

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임으로다”(롬 5:3~4).

마치 시냇물 때문에 돌이 아프지만 결국 그것으로 모서리 나지 않고 둥근 조약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 다. 그에게 닥친 환난이나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23~27)고 고백했고, 오죽하면 그는 살 소망까지 잃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그것을 이겨내고 유럽선교의 장을 열었을 때 그는 환희에 차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0).

대양의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든다

여러분, 고난은 터널과 같습니다. 참고 견디고 나가면 눈부신 태양이 빛나는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좌절하고 눈물 젖은 빵 때문에 낙심하면 그곳은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고난 중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고통 중이라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욕의 말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 23:10). 뜨거운 용광로를 피하고 정금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 까? 진주라는 보석은 오랜 세월동안 심한 고통 속에서만 들어지는 것 아닙니 까? 고난이 즐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정금이 된다면, 정금이 되어 내 가치가 상승되고 내가 하나님의 쓸 만한 그릇이 된다면, 고난을 노래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불평하고 낙심치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 까? 옷에 묻은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옷이 세탁기에 들어가 부대끼는 아픔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다니엘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고난을 통해 더욱 완성된 믿음을 가진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라고 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권세를 하나님께 이양 받으셨습니 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뒤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 값지고 귀한 것이며, 쉽사리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보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시 119:67).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겨자씨만한 믿음 ::

변화해야 삽니다

하나님과 독대

아마존 강 유역에 ‘구피’라는 물고기가 삽니다. 폭포 상류에 사는 구피는 밝은 색깔과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폭포 하류에 사는 구피는 거무스름한 색깔에 단조로운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 앤들러’라는 과학자가 구피가 사는 환경을 관찰해본 결과 폭포 하류에는 구피를 먹이로 하는 ‘파이크시크리’라는 큰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고 폭포 상류에는 이러한 천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존 앤들러는 천적을 넣지 않은 수조, 천적을 넣은 수조, 수조 바닥을 모래로 깔은 수조, 자갈로 깔은 수조 등 10여개의 수조를 준비하여 구피를 넣고 1년 동안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적을 넣지 않고 기른 구피는 색과 무늬가 화려하였고, 천적을 넣은 수조에서 양식한 구피는 회색빛의 단순 무늬를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자갈 바닥에서 기른 구피는 자갈처럼 큰 무늬를, 모래 바닥에서 기른 구피는 모래처럼 작은 무늬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생존과 번식입니다. 폭포 상류에 사는 구피는 생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번식을 위해 다른 구피에게 잘 보이도록 화려하게 변화하고, 하류에 사는 구피는 생존하기 위해 눈에 잘 띄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북핵이라는 생존의 위협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경제적 대변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선적 측면에서 보

면 인간의 타락과 비이성적 행동이 날로 심해지고, 자기주장만 펼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성향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한 목자와 교회에 대한 기사는 우리를 더욱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목자는 시대의 변화와 세대의 차이를 두루 고려한 새롭고 신선한 설교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숭선수범하여 실천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예수님 모시듯이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목자와 교회 리더의 안내를 잘 따르면서 성도 간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합니다. 교회는 불합리하면서도 관습적인 일부 제도를 즉시, 그리고 과감히 바꿉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우선 시도할 변화가 아닐까요?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것은 잎사귀가 주위 온도 변화에 대해 생존을 위해 부단히 환경 대응한 결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험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변화해야 삽니다.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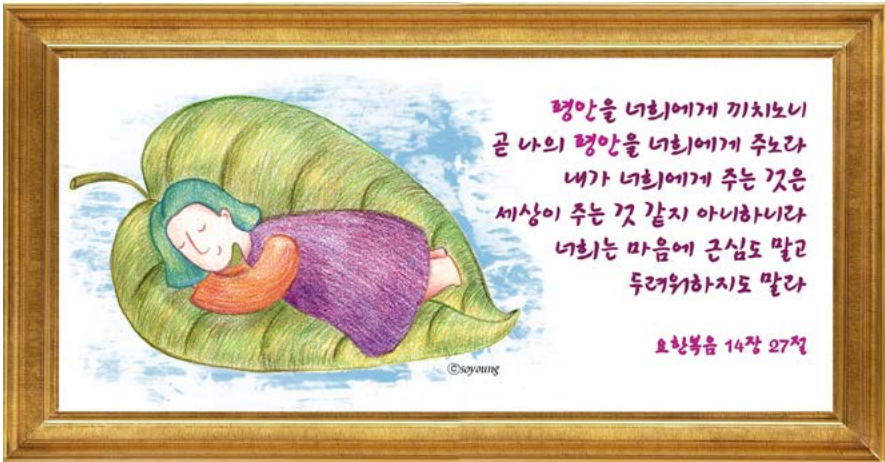
삶은 끊임없는 타인과의 만남과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가 드러난다. 자신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타인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때로는 타인을 의식하며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과장하여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마음 속 알맹이야 어떻든 형식과 권위로 사람들을 판단했으며 스스로 거룩한 자로 생각했기에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과 규칙 뒤에서 비바리새인을 얹잡아 보았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알맹이 없이 형식만 추구하는 모습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위선자들과라고 꾸짖게 만들었다(마 23).

남들 시선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은데 그런 척하는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시는 하나님과 대면하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자신만 말이다. 남을 의식하면서 기도가 아닌 골방에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주신다(마6:6). 이렇게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는 골방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겉껍질만 남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심장을 털어놓을 곳은 우리의 마음을 낱알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밖에 없다. 오직 주는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진실되게 하나님과 독대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무릇 여호와의 의지하며 여호와의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렘 17:7).

김성일
cre8tor@naver.com



:: 성경에세이 ::

:: 사랑&행복 ::

입맛 나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

여보게!
지난 뜨거운 7월, 나는 기도원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수련회 준비 작업을 했네. 청년대학부 아이들과 함께 말일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했지. 그런데 말일세, 젊은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밥을 먹으니 입맛이 돌더군. 그렇잖아도 돌도 삭힐 아이들인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밥을 먹으니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두 그릇 이상을 푹푹 해치우는 거야. 더욱이 나는 일을 놔두고 밥 먹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은가. 일을 다 마치고 때가 지난 뒤 밥을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는가. ‘시장이 반찬’이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딱 맞더군. 그들이 하도 맛있게 잘 먹으니까 나도 덩달아 맛있고, 덩달아 많이 먹게 되더라고.

여보게!
내가 그들과 함께 깨달은 것이 있네. 맛있게 밥을 먹는 자와 함께 하면 나도 밥맛이 꿀맛이듯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걸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아! 나도 기도해야 하는데...’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결국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네. 열심히 봉사하는 자

와 함께 하다보면 ‘나도 해야지.’ 하게 되고 말일세.

그러나 주일 일찍 예배드리고 골프나 치러가고, 산으로, 들로 가는 사람과 함께 하면 나도 주일 출석도장이나 찢게 되지. 그러다 점차 신앙에 잠수를 타게 되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하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을 닮게 되지. 식사 시간에 기도도 대충 눈 뜨고 하게 되고, 술도 한 잔 기울이게 되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도 가게 되고 말일세. 그러다보면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그들보다 더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수가 있지.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라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13:20)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네. 내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누누이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까닭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금세와 내세를 좌우하기 때문이네.

“또 이 이야기야?” 하지 말고, 자네를 돌아보게나.

朋友

얼마 전 아이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는데 아이가 장난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안타까운 눈망울에 하나 사주기로 하고 장난감을 살펴보니 여덟 살은 돼야 놀만한 것이었습니다. 연령에 적당한 것으로 바꿔주려 하니 처음 고른 것을 꼭 갖겠다고 하여, 있으면 갖고 놀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긴 했는데, 역시 장난감이 작고 복잡해서 잘 갖고 놀지 못했습니다. 살 때는 그렇게 왜원하더니 감당이 안 되는 장난감은 관심 밖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차, 연령에 맞지 않는 건 졸라도 사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문득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하루빨리 응답이 오기만을 졸랐는데,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나를 관찰하고 계실지를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제 모습도 저의 어린 아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납니다. 너무 졸라 빨리 응답하면 감당 못해 방치된 장난감처럼 될 테이고, 너무 늦게 응답하면 지쳐 시시해져 버릴 테니... 하나님이 왜 그분의 때에 따라 정

확하게 응답을 내리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중히 여기시던 그 남매의 사정을 아시고도 베다니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는 결국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오셨습니다. 왜 이제 오셨냐는 원망 섞인 목소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를 부르셨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야만 살아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때에 일하심으로 나사로를 살림은 물론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까지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히 하나님의 때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게 오더라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소망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최고의 때에 일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본다면 행복한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김고은
khjc77@hanmail.net

꿈을 향해 달리는 자의 눈빛

부산국제영화제를 다녀왔다. 개막식부터 폐막식이 있는 날까지 부산에 머물면서 총 25편의 영화를 보았다. 다양한 나라의 영화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하였다. 어떤 영화는 보다가 잠들어버려 내용을조차 모르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는 훌륭했고, 감독이 그 영화 한 편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 지를 생각해보게 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 5대 영화제 중의 하나이며, 한국영화계 내에서도 아주 큰 축제이다. 그런 큰 영화제에 자신의 이름을 건 영화를 출품하거나 초청받는 것은 축하받을 일이고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다. 여러 감독들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감독들이 그간 노력했던 시간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 함께 즐겁고 기뻐했다. 모든 감독들이 축제의 시간을 즐기면서 감격해하지만 그 감독들이 모두 성공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부산영화제를 시작으로 그들이 성공의 길로 들어설지 아닐지는 다른 데서 차이가 난다.

꽤 오랜 시간 매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으면서 내가 보는 것은 그들의 눈빛이다. 영화 장면 속이건 무대인사 때이건 그들의 눈빛을 유심히 보면, 앞으로 2년 이내에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조만간 대중의 인기를 얻을 배우들의 눈빛은 말 그대로 ‘살아있다.’ 수백 명이 섞인 관객석에서도 그들은 쉽게 찾을 수 있고, 극장과 극장 사이를 오고가는 길 사이에서도 그들은 쉽게 눈에 띈다. 결코 그들의 외모 때문이 아니다. 부산영화제에 오기까지 술한 우여곡절과 힘든 역경을 뛰어넘은 노력의 시간이 그 눈빛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눈에 띄고, 보석처럼 빛이 난다.

흙구덩이에 있어도 보석은 빛이 나기 마련이다. ‘낭중지추(囊中之錘)’라는 말이 있다.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은 튀어나오기 마련이라는 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영화제 인파 속에서도 감독과 배우들이 티가 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그 주머니 속의 송곳과도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십여 일을 부산에 있으면서 새삼

또 다짐을 하는 것은 나도 그들처럼 살아있는 눈빛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 목표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눈앞의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다. 내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의 그 무언가를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눈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래서 꿈을 향해 달리는 그들의 눈빛은 빛날 수밖에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로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자신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처럼, 그리고 영화제 내내 빛이 났던 그 사람들처럼 나도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뜻하신 내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내 안의 무언가가 보석처럼 빛이 나길 기도해본다.

전춘지
ppjee@hanmail.net

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이제는 삶이 두렵지 않고 새로운 기쁨을 찾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의 심령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참된 행복을 꿈꾸고 있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학과 철학에 심취해 있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출판업에 종사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오던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출판한 책들이 왜 스마트폰처럼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자신의 삶에 불만이 생기고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허무한 인생의 돌고래를 찾아보려고 회사를 정리하고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철학책을 섭렵하였으나 거기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외국유학을 갔다가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무심코 들렀던 교회에서 참으로 행복해 보이는 노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중에 자신이 갈망하던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

다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허무한 인생의 돌고래를 찾아보려고 회사를 정리하고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철학책을 섭렵하였으나 거기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외국유학을 갔다가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무심코 들렀던 교회에서 참으로 행복해 보이는 노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중에 자신이 갈망하던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

❖ 인연이란 자르는 것이 아니고 잘 보관했다 쓰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Likewise, it's not wise to just cut off some of the relationships, rather keep good relationships.
缘分不是斩断的,而是好好保管而善用的,这样的人才是智慧的人。

❖ 사울은 인연을 끊은 자요 다윗은 인연을 품은 자다

A person like David knew how to keep good relationship, but Saul was the opposite.
扫罗是断绝缘分的人,大卫是解开缘分的人。能想象的为止。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지방간이 있을 때 피해야 할 음식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어떤 특정 음식들을 가려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방간 환자들이 멀리 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간에 해로울 수 있는 음식은 술, 기름진 음식, 가공된 음식, 오염된 음식,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이 있다. 우선 술은 많이 마시게 될 경우 직접적으로 간 손상을 유발한다. 많이 마시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지침이 정한 ‘월 위험한 음주량’은 하루에 맥걸리 2홉(360cc), 소주 2잔(100cc), 맥주 3컵(600cc), 포도주 2잔(240cc), 양주 2잔(60cc)이다. 이보다 더 마시면 과음에 해당되며 이런 경우 지방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술을 마신 후에는 적어도 48시간은 금주하여 간이 회복되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음식 조절이다. 권장되는 생활 개선방법으로는 식사를 거르지 말고 세 끼를 먹되 한 끼 분량을 25% 정도 조금씩 줄여 하루 총에너지 섭취량을 25% 정도로 감량하는 것이다. 또한 야식과 과식을 피하고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기름에 튀긴 음식보다는 삶은 음식, 당분이 들어간 음료수보다는 물이나 녹차 종류를 먹는 것이 좋고 사탕, 꿀, 초콜릿, 라면, 도넛, 케이크, 삼겹살, 갈비, 닭 껍질, 햄, 치즈, 땅콩, 콜라, 사이다 등은 피해야 한다. 오히려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은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비위생적이거나 익히지 않은 음식의 경우 A형 간염이나 비브리오 등에 감염되어 간 손상을 일으

킬 수 있으므로 피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요법의 경우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한간학회에서 권장하지 않는 민간요법은 인진쑥, 돌미나리즙, 녹즙, 상황버섯, 헛개나무, 오가피 등 생약제, 다슬기즙, 붕어즙, 장어즙, 특정약물, 다이어트한약 등이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간에 좋다고 권장되는 음식인데 농축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거나 개인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음식을 잘 피하고 식이요법(저탄수화물식, 저지방식)과 운동을 통한 생활습관의 개선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중요하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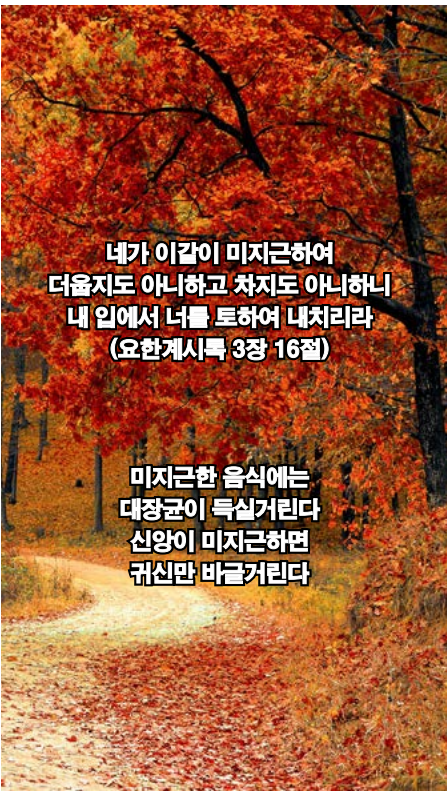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포샤의 재판은 명판결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안토니오는 사일룩에게 돈을 빌리면서 3개월 내에 갚지 못하면 1파운드의 살을 떼어주기로 공증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안토니오는 그 기한을 어겼고 사일룩은 법대로 살을 도려내겠다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이때 판사로 등장한 포샤는 사일룩에게 ‘그대가 원하는 대로 정의를 주겠다’면서 ‘살 1파운드를 도려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증서에는 ‘살 1파운드’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으므로 반박할 말이 없어진 사일룩은 원금이라도 달라며 애걸하지만 포샤는 차갑게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재판이 통쾌한 이유는 공증서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를 동일한 증서를 내세워 뒤집어엎은 논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성을 떠나 판결만 놓고 보면 이것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사실 논리적 판결보다는 소박한 화해가 더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비용이 많이 들며 심적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을 하면서 당사자들의 사이는 더욱 나빠집니다. 미국은 민사 분쟁의 90%, 일본은 40%정도를 화해로 해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화해율이 10%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화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해는 그 자체로 과거를 치유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은 한 마디로 난사람 만들기에 힘을 씁니다. 그러나 한사람의 실력을 높여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교육을 받았다고 다 참된 사람으로 양육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이란 1명의 난사람을 만들기에 목을 뿜 것이 아니라 100명의 된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

미지근한 음식에는
대장균이 득실거린다
신앙이 미지근하면
귀신만 바글거린다